

1920-30년대 상하이의 협의서사 흥성 배경*

— 근대시기 동북아해역 인문네트워크와 상하이의 대중문화 (1)

안승웅**

【목 차】

1. 들어가며
2. 지식인의 도시 상하이와 엘리트 문화 속 상무정신
 - 1) 외래문물의 집결과 지식인의 중국인식
 - 2) 사무라이 정신의 찬양에서 협객정신의 찬양
3. 이주자의 도시 상하이와 하위문화 속 협의정신
 - 1) 조계의 팽창과 다양한 인종, 지역민의 가치지향
 - 2) 부랑민의 삶에서 협객의 삶으로
4. 맺으며

【초록】

상하이는 국제도시로 세계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중국 그 어느 도시보다 지식인들이 집결하는 도시로 성장하였다. 상하이의 진보적 지식인은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이 처한 상황을 깨닫게 되었고,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자연스럽게 상무정신을 고취하였다. 많은 지식인은 중국 역사와 민간의 전통 속에서 협객을 발굴하였으며 그들의 상무정신을 찬양하였다. 한편, 상하이는 노동 이주민의 도시였다. 세계대전 후 서구의 자본이 상하이에 몰리게 되면서 국제도시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상공업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이에 상하이에는 다양한 국가, 인종, 지역민이 모여들었다. 이주민들은 그들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업종별, 출신 지역별로 다양한 조직을 결성하였고, 이들 조직은 조직의 결속을 위해 민간의 협의정신을 적극 수용하였다. 결론적으로 근대시기 상하이에는 위로는 상류층 지식인의 엘리트문화에서 아래로는 하층 노동자들의 하위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협의정신을 찬양하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xiong01@hanmail.net)

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는 근대시기 상하이가 지식과 지식인, 자본과 노동자를 끌어들이는 동북아해역의 인문네트워크 중심도시로 성장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1920-30년대 상하이에 협의서사가 흥성하게 된 주요배경이 되었다.

【키워드】 근대시기, 동북아해역, 인문네트워크, 상하이, 협의서사, 상무정신, 협객, 엘리트 문화, 하위문화

1. 들어가며

중국에서 수입된 협의서사¹⁾는 우리생활 속에 깊숙이 그리고 광범위하게 침투해 있는 문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문화적 함의 또한 가볍지 않다.²⁾ 하지만 B급 통속문화라는 선입관 때문에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³⁾ 연구서의 경우 무협소설이나 무협영화와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소개하거나 무협소설과 무협영화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개별 연구논문 경우는 대다수가 무협소설 작가와 작품에 관한 소개이며, 일부 논문은 무협서사와 시대적 배경을 연관시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무협소설이나 무협영화와 같은 특정 장르에 한정되어 있고 이를 아우른 협의서사 자체에 대한 문화적 고민은 잘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는 곧 대중문화 현상이라는 거시적 시야에서 협의서사가 탄생, 전파, 변용되는 과정을 탐구한 연구

- 1) 우리대중문화에 있어 ‘무협’이라 하면 칼을 찬 고대의 협객만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시대와 상관없고 각양각색의 협객의 이야기를 아우를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이 용어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무협보다 좀 더 의미가 포괄적인 ‘협의(俠義)’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협의는 “정의의 편에 서서 약자를 돕는 일, 또는 그러한 기질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협의서사’는 무협소설이나 무협영화 뿐 아니라 다양한 액션영화와 판타지소설까지 포괄할 수 있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협의서사란 용어와 개념에 관한 문제는 차후 많은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2) 중국에서 수입된 협의서사는 한국 대중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무협소설의 경우, 1962년 尉遲文的 『劍海孤鴻』이 『情俠誌』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변안된 이래, 1970년대까지 臥龍生, 司馬翎 등 중국작가들의 수많은 작품이 큰 인기를 끌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金庸의 『소설 영웅문』을 필두로, 古龍, 梁雨生 등의 무협소설이 정식으로 번역 출간되어 서점가를 점령하기도 하였다. 무협영화의 경우, 1960년대는 王羽 주연의 ‘외팔이 검객 시리즈(獨臂刀)’가, 1970년대는 李小龍의 영화가 한 시대를 풍미했다. 80년대는 成龍, 洪金寶, 元彪 트리오의 코믹액션영화가, 90년대는 李連杰의 ‘黃飛鴻’과 ‘東方不敗’ 시리즈가 홍콩 무협영화의 불패를 자랑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李安의 ‘臥虎藏龍’과 周星馳의 ‘쿵푸허슬’ 등과 같은 개성 넘치는 영화가 선보였다. 중국발 협의서사는 국내의 협의서사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70-80년대는 중국의 무협소설 작가 臥龍生, 司馬翎의 이름을 도용한 국내 무협소설이 대본소 벽면을 가득 채운 적이 있었다. 영화의 경우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국적불명의 무협영화가 대량 제작되기도 하였다.
- 3) 연구서로는 『한국 무협소설사』(이진원, 2008), 『무협의 시대: 1966~1976』(송희복, 2009), 『무협소설의 문화적 의미』(전형준, 2004) 등이 있다. 개별 연구논문으로 「『검협전』에 나타난 고전협의 형상과 주제의식에 관한 연구」(우강식, 2016), 「김용의 무협세계」(정동보, 2000), 「무협장르와 흥색경진」(유경철, 2005), 「무협소설의 협객과 『탄상싱(檀香刑)』의 협객이 구성하는 역사」(유경철, 2005), 「무협 텍스트의 근대적 변용 - 영화를 통한 문화적 재현에 관한 일고」(김경석, 2011) 등이 있다.

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드러난다.

주지하고 있듯, 협의서사는 대중문화의 대표적 장르로서 동북아시아의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관건이기도 하다. 이는 곧 협의서사가 근대시기 도시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대중의 보편적 욕망을 투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儒·佛·道라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협의서사는 근대적 욕망의 대리만족임과 동시에 儒·佛·道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지향이다. 동아시아의 근대적 욕망과 전통적 가치관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서사는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로 변주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환영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거시적 시야에서 대중적 협의서사가 탄생하고 전파되고 변용되는 과정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근대화시기 동북아시아’라는 보다 넓은 시야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리할 때 우리는 근대시기 ‘동북아해역 인문네트워크’와 그 중심도시인 ‘상하이’를 다시 한 번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⁴⁾

동북아해역 중심도시 상하이에는 그 어느 도시보다 국제적 정보가 넘쳐났고, 과거 봉건사회에는 없었던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났다. 때문에 해역도시 상하이는 지식인과 노동자라는 결이 다른 두 부류의 계층을 한꺼번에 끌어들이는 마성의 도시가 되었다. 국제정세와 정보에 목마른 지식인들은 배움을 위해, 배고픈 서민들은 생존을 위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상하이에 몰려들어왔다. 즉, 동북아해역 인문네트워크의 중심도시라는 특징으로 인해 상하이에는 짧은 기간 동안 상이한 계층의 상이한 문화가 동시에 그만의 특색을 갖추어 발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은, 상하이의 두 상이한 계층의 문화, 즉 상류계층 지식인의 엘리트문화와 하위계층 노동자의 하위문화(sub-culture) 모두가 근대라는 시대적 특수성으로 인해 협의정신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식인은 위기기에 처한 중국을 구하기 위해 애국 계몽적 차원에서 상무정신과 협의정신을 찬양하였고, 하층노동자는 그들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가 협객이 되길 바라고 있었다.

본고는 동북아해역 인문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상류계층의 엘리트문화와 하위계층의 하위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1920-30년대 상하이에서 협의서사가 발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한다.⁵⁾ 이는 ‘도시의 발달’, ‘대중소설의 유행’, ‘영화매체의 도입’ 등과 같이 드러나는 측면에

4) 동북아시아의 근대화는 바닷길로부터 시작되었다. 동북아시아 각국에 개항장이 설치되면서 서구의 근대문명이 본격적으로 전래되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해항도시는 서구의 문명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해항도시 간에 주기적인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동북아시아 각국의 근대화를 촉진하였다. 이 해역 네트워크는 국가보다 큰 단위 공간과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국가와 민족이라는 분석 단위를 넘어선다. 해역을 통해 보면 국가주의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민간문화의 자발적 유통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국경이 없는 대중문화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근대시기 동북아시아를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묶었던 ‘해역’과 근대화 당시 최대 국제도시였던 상하이를 주목하게 된다. 상하이는 근대 동북아 해역 인문네트워크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시 중의 하나였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상하이는 제국주의 국가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橋頭堡가 되었다. 일찍이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자본이 진출하여 1920-30년대 상하이는 근대적 상업은 물론 공업까지 발달한 동북아 해역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5) “1928년에는 「강호기협전」의 일부가 「불타는 홍련사(火燒紅蓮寺)」라 는 제목으로 명성화사(明星映畫

서 살펴보는 것 보다 한층 더 심원한 차원에서 협의서사의 흥성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 지식인의 도시 상하이와 엘리트 문화 속 상무정신

1) 외래문물의 집결과 지식인의 중국현실 인식

상하이는 1만 8000킬로미터에 달하는 중국남북 해안선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을 남북으로 구획하는 최대의 강 長江의 하구에 위치하고 있다. 거대한 강 長江은 수심이 깊을 뿐 아니라 중국내륙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 長江유역에서는 일찍이 배를 이용한 물자수송이 발달해 있었다. 상하이의 이러한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해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서구열강은 앞을 다투어 상하이에 조계지를 설치하고 이로써 중국 침탈의 교두보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고 서구 자본주의 국가가 몰려옴에 따라 상하이는 아주 빠른 속도로 무역 중심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1850년에 영국의 P&O 기선이 상하이와 홍콩 사이에 정기항로를 개설하여, 종래의 런던과 홍콩 사이의 연락망을 상하이까지 연장했다. 이어서 프랑스 제국우편선이 1861년에 사이공과 상하이를, 그리고 1863년에 마르세이유와 상하이 사이에 정기항로를 개설하여 동남아시아 및 유럽대륙과 상하이를 직접 연결하였다. 그 후 미국의 태평양 우편선도 1867년에 샌프란시스코와 홍콩 사이에 항로를 개설하였는데, 요코하마와 상하이 등을 기항지로 하고 있었다.”⁶⁾

이로 인해 상하이는 북미 서해안, 일본, 중국, 동남아, 유럽을 왕래하는 운선이라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동북아해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하였다.⁷⁾ 상하이는 중국에서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며 서양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다. 즉, 서양에 관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모이게 되는 국제도시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상하이의 이러한 특징은 서양에 관한 정보에 목말라 하는 지식인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 1882년 상하이를 방문한 康有爲는 “상하이의 번영을 통해 서양정치의 근본을 널리 알 수 있다”⁸⁾라고 하여 중국

社)에서 만들어지면서 무협 열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이후 중국 각지에서 무협소설이 쏟아져 나왔다. “남파(南派)에서는 고명도(顧明道)의 『황강여협(荒江女俠)』, 조환정(趙煥亭)의 『기협 정충전(奇俠精忠傳)』 등이 나왔고, 북파(北派)에서는 환주루(還珠樓)의 주 인인 이수민(李壽民)의 『촉산검협전(蜀山劍俠傳)』, 백우(白羽)의 『십이금 전표(十二金錢票)』 등이 나와 그 수가 수백 종이 되었다.” (한상언, 『원양호접과 식민지 조선의 무협영화』, 『현대영화연구』, vol.6, 2008, p.183.)

1928년 『불타는 홍련사(火燒紅蓮寺)』가 상영된 후 1931년까지 18편이 연속 제작되었으며, 1930년대 초반에 40여 곳이 넘는 제작사가 227편에 이르는 무협영화가 제작하였다 한다. 임대근·곽수경 외, 『20세기 상하이 영화: 역사와 해제』, 산지니, 2010.10, p.19 참고.

6) 劉建輝, 『魔都上海 - 日本知識人の近代體驗』, 筑摩書房, 2010.08, p.80.

7) 조성환, 『한국 근대 지식인의 상해 체험』, 『중국학』, 제29집, 2007.12, p.160 참조.

8) “上海之繁盛, 益知西人治之本也”. 『康南海自編年譜, 戊戌變法』4冊, 北京, 中華書局, 1978, p.116. (이철원, 『중국의 근대문화 형성과정에서 상해 조계의 영향』, 『중국문화연구』, 2009.12, p.541에서 재인용)

의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상하이를 방문하고 학습하도록 더욱 부추겼다.⁹⁾

그런데 상하이가 지식인을 끌어들이 수 있었던 것은 상하이가 단순히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외국 선교사와 중국유학생들의 인문 활동이 아주 큰 역할을 하였다. 다시 말해 상하이가 외국 선교사들의 ‘과학선교’의 중심지가 되고, 외국에서 귀국한 중국 유학생들의 활동무대가 되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850년대에 이르러 상하이가 그 어느 개항지보다 빠르게 발전하자 각 개항지에 흩어져 있던 선교사들은 선교의 편의를 위해 무역과 교통 네트워크의 중심지인 상하이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은 중국어판 성경의 출판을 위해 출판사를 설립하였는데, 이른바 1843년에 첫 설립된 墨海書館이다. 묵해서관은 1843년 런던회 소속 선교사 매드하스트(Walter Henry Medhurst)가 런던회의 인쇄시설을 상하이에 옮겨 설립한 출판사로서, 25만부에 이르는 한역 성서와 171 종의 한문 진도서와 과학서를 출판하였다. 당시 상하이의 선교사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천문, 지리 관련 등 서구의 다양한 과학 도서를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묵해서관은 서양서의 한역과정에서 서구지식을 수용, 전파할 王韜, 李善蘭 등과 같은 전문 지식인을 상하이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였다. 묵해서관은 약 20년간 한역 서양서 출간을 통해 서양의 정보를 알리는 창구가 되어 수많은 중국의 지식인을 상하이로 불러들였던 것이다. 청나라 정부에서 양무운동을 주도하게 된 것 또한 郭嵩燾 등과 같은 관료들이 상하이에서 묵해서관을 체험한 결과라 한다.¹⁰⁾

한편, 상하이는 유학생 파견과 유입을 통해 교통, 무역의 중심지에서 인문네트워크 중심지로 더욱 성장하게 된다. 1860년대 양무운동이 시작된 이래 1872년 첫 번째 관비 유학생 30명이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도시가 바로 상하이였다. 1910년대부터 시작된 근검공학 운동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프랑스 유학길에 올랐는데 그때의 출발지도 모두 상하이였다. 蔡元培, 李石曾, 周恩來, 鄧小平 등과 같이 중국 근현대사에 심원한 영향을 끼친 지식인들이 모두 상하이를 통해 유학길에 올랐다. 그리고 출판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던 상하이는 유학생들이 돌아와 자신이 배운 것을 펼쳐내고 싶어 하는 곳이기도 했다. 상하이를 통해 유학길을 떠났던 수많은 유학생들이 귀국하여 상하이에 정착하였으며, 서양에서 배운 것을 번역하거나 저술하여 출간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에서 돌아온 陳獨秀가 『新青年』의 진신인 『青年雜誌』을 상하이에서 출간할 수 있었던 것도 상하이가 정보와 젊은 지식인을 끌어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상하이 중국지식인의 서구의 정보나 지식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이는 다른 지역에서 먼저 출판되었다가 상하이에서 복간되었던 『海國圖志』와 『天演論』을 통해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海國圖志』는 아편전쟁에 참여했던 魏源 이 林則徐의 부탁으로 1842년부터 처음 저술하기 시작한 중국 최초의 해외지리서이다.¹¹⁾ 1852년 100권으로 완성되었는데, 세계 각국의 역사,

9) 이철원, 「중국의 근대문화 형성과정에서 상해 조계의 영향」, 『중국문화연구』, 2009.12, p.541.

10) 劉建輝, 『魔都上海 - 日本知識人の近代體驗』, 筑摩書房, 2010.08, pp.95-98 참조.

11) 『海國圖志』는 1847-48년에 揚州에서 60권 본으로 첫 출간되었는데, 출간 당시 중국 내에서는 별 영향력이 없었다한다. 그러다가 1851년 일본에 전해진 후 일본에서 15번이나 복간될 정도로 유행하게 된다. 이러한 일본의 인기의 영향으로 1895년 상하이의 積山書局에서 다시 복간되었다.

지리, 정치, 경제, 군사, 기술, 종교, 문화 등을 소개하고 있다. 『海國圖志』는 세계는 평평하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 믿고 있었던 당시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당시 지식인들이 세계사의 흐름에서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바를 고민하게 하는 책이기도 하였다. 魏源은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을 왜 지었는가? 대답하자면, ‘오랑캐의 장기를 배워서 오랑캐를 제압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다’¹²⁾라 밝히고 있다. 그런데 魏源이 서구 오랑캐로부터 배워야 할 내용은 한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었다. 위원은 “오랑캐의 장기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전함을 잘 만드는 것, 둘째, 총포를 잘 만드는 것, 셋째, 군사를 잘 훈련시키는 것”¹³⁾이라 하였다. 모두가 서양의 군사기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아편전쟁 당시 전장에서 편협하게 서양의 문물을 경험하였던 魏源의 관점이 드러난다. 서구의 문물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군사력을 빨리 키워 오랑캐를 물리쳐야 한다는 우국정신이 더욱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海國圖志』가 군사 방면에서 막연한 우국정신을 드러내었다면, 『天演論』은 중국이 처한 위기감을 강조한 책이었다. 『天演論』은 嚴復이 T.H 허슬리의 『진화와 윤리』를 1897년 번역하고 해설을 덧붙인 것으로 天津의 『國聞彙編』에서 처음 발표되었고 1898년 湖南의 沅陽에서 처음으로 완결본으로 출간되었다.¹⁴⁾ 『天演論』은 다윈의 진화론의 주요 개념인 생존경쟁, 자연도태를 인간사회에 적용하여 우생열패, 적자생존의 냉엄한 법칙을 중국지식인에게 알려주었다. 여기서 『天演論』의 역사적 의미는 嚴復이 단순히 서구사상을 소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려한 문체, 주도적인 번역과 해설을 통해 “민족을 멸망에서 구한다.”라는 지식인의 애국계몽운동에 불을 지폈다는 점이다. 통계에 의하면 1905년 상하이의 상무인서관에 출판된 이래 1927년까지 20여 년간 24 번이나 재출간 되었는데,¹⁵⁾ 이는 『天演論』이 당시 중국지식인의 애국계몽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중국지식인은 『海國圖志』나 『天演論』 같은 도서를 통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중국이 처한 상황을 점차 객관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함선과 대포를 앞세운 서구 열강의 침략을 막아 내야 하는 중국의 현실은 중국 지식인의 상무정신을 자극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부국강병의 시대적 요청과 적자생존의 절박함 속에서 민주와 평등과 같은 서양의 발달한 정치문화는 상무정신에게 자리를 내주어야만 했던 것이다.

2) 사무라이 정신의 찬양에서 협객정신의 찬양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중국의 전통 지식인은 천하의 안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의식이 강하였다. 국가의 존망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근대시기 지식인의 경우 사회적 소명의식은 더욱 강하였다. 그리하여 근대시기 엘리트 문화에는 애국계몽운동의 차원에서 상무정신의 고양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12) “是書何以作? 曰: 為師夷長技以制夷而作” 魏源著, 陳華 等點校註釋, 『海國圖志』(籌海篇三議戰) 第26, p.30.

13) “夷之長技三: 一、戰艦, 二、火器, 三、養兵、練兵之法.” 상계서 p.30.

14) 상하이에서는 富文書局과 商務印書館이 1901년, 1905년에 각각 출판하였다.

15) 張秉倫 盧繼得, 「進化論在中國的傳播和影響」, 『中國科技史料』, 1982年第1期, p.18 참조.

그리고 1900년대 초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던 일본의 무사도정신은 지식인의 엘리트 문화 속 상무적인 분위기를 더욱 더 고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일본인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稻造)는 1901년 1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Bushido, the Soul of Japan』(무사도, 일본의 혼) (1899년 작)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메이지 유신 이래 서양에 대한 일본인의 열등 의식을 극복하고 서구우월주의를 반성하고 일본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작되었다.¹⁶⁾ 일본의 제국주의화를 옹호하는 글이었지만 당시 시대적 배경 하에 여러 국가가 주목하는 바가 되었다. 1905년도에 독일어, 보헤미아어, 폴란드어로 출간되었으며, 러시아어 번역도 완성되었다.¹⁷⁾ 특히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무사도 정신에 대한 평가는 극에 달하고 있었다.

중국에 이러한 무사도 정신을 크게 언급한 사람은 바로 梁啓超였다. 무술변법이 실패한 뒤 일본에 망명 중이었던 梁啓超는 여행을 나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음력12월은 일본 병영에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고 교대하는 달이다. 그 때 나는 信과 함께 우에노(上野)에 놀러 갔었다. 거리에는 온통 붉고 흰 깃발들로 이어져 있었다. …… 대체적으로 병사들이 병영에 들어가고 나올 때가 되면 친척과 친구들이 환영하거나 환송하였는데, 이를 영광이라 여겼다. …… 제목이 “祈戰死(전쟁에서 죽길 바랍니다)” 세 글자였다. 나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갑자기 숙연해져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¹⁸⁾

梁啓超는 ‘전쟁에서 죽길 바란다.’는 일본의 무사도 정신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자극을 받아 중국인의 노예근성, 우매함, 위선, 나약함, 비겁함 등의 국민성을 개조할 수 있는 정신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 역사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실천하였던 豫讓, 聶政, 荊軻 등과 같은 협객들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中國之武士道』란 책을 저술한다.

나는 그러한 고로 지금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사실을 수집하여, 최고로 명예롭고 모범적인 우리 자손에게 건네주려 한다. 사건의 전말을 설명함에 평론을 더하였다. 일본에서 유행하는 말을 취하여 『中國之武士道』라 이름 붙였다.¹⁹⁾

梁啓超는 국가나 민족을 위해 목숨 바쳐 충성을 하는 무사도정신은 중국인에게도 있었으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단절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고대 인물들을 발굴하여 단절된 중국의 상무정신을 진작시키려 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무사도정신 같은 맹목적인 상무정신은 끊어졌지만, 옳음을 실천하기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중국 전통의 협객의 정신은 민간문화 속에는 면면히 이어지고 있었

16) 함동주, 「니토베 이나조의 『무사도』와 미국의 일본인식」, 『동양사학연구』, 121, 2012.12, p.354 참조.

17) 상계서, p.361 참조.

18) “冬臘之月, 日本兵營士卒, 休憩瓜代之時, 余偶信 步遊上野. 滿街紅白之標識相接, ……蓋兵卒入營出營之時, 親友宗族相與迎送之, 以為光寵者也. …… 題曰“祈戰死”三字. 余見之矍然肅然, 流連而不能去.” 「飲冰室自由書·祈戰死」, 『梁啓超全集』1冊, 北京出版社, 1999, p.356.

19) “我故今搜集我祖宗經歷之事實, 貽最名譽之模範於我子孫者, 敘述始末, 而加以論平, 取日本輸入通行之名詞, 名之曰『中國之武士道』” 梁啓超, 「『中國之武士道』自敘」, 『梁啓超全集』, 北京出版社, 1999版, p.13 86.

다. 聞一多是「關於儒·佛·道」라는 글에서 “대부분의 중국인의 영혼 속에는 한 명의 儒家, 한 명의 道家, 한 명의 土匪가 투쟁하고 있다.”는 웰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국문화 속의 遊俠전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²⁰⁾ 이 遊俠전통은 춘추전국시기에 형성된 이래 역사의 변천을 겪으며 사회의 기층에까지 침투해 들어간 독특한 정신문화라 할 수 있다.²¹⁾ 특히 ‘의리를 중시하고 이익을 경시(重義輕利)’하며, ‘은혜는 잊지 않으며, 원수는 반드시 갚고야 마는(知恩必報)’ 遊俠정신은 줄곧 민간 사회의 소박한 윤리도덕의 준칙이 되어왔다.

梁啓超가 중국의 무사도 정신의 부활과 상무정신의 진작을 이야기한 이래 중국지식인들은 자신의 고향 농촌 민간문화 속의 협의정신을 자각하고 선양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郭沫若의 아래 글은 이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비적들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컸다. 그들이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자신의 고향 15리 안에서는 절대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규율이었다. 그들이 재물 신, 동자, 관음(시골 비적 떼들이 사용하는 말로, 남자는 재물 신, 어린아이는 동자, 여자는 관음이라 하였다)을 약탈하고 날강도 짓을 한다면 자신의 고향사람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들이 약탈하는 대상은 주로 시골의 한 톨의 돈도 목숨처럼 여기는 돼지처럼 탐욕스러운 악질 지주였다. 이것이 그들이 내세우는 의협심이었다.”²²⁾

郭沫若은 어린시절 추억을 더듬으며 비적들의 협기를 찬양하고 있다. 협기만 있다면 비적이라도 상관없다는 광말약의 이러한 논조는 1920년대 지식인 사이에 중국전통의 협객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고, 지식인의 문화 속에 협의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1920-30년대 상하이에서 작품 활동을 하였던 중국의 대표적인 현대문학자인 老舍, 沈從文 또한 그들의 작품을 통해 협의를 숭상하였다. 老舍는 『趙子曰』에서 군벌을 암살하려다 죽음을 당하는 李景純을 그려냄으로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대의 협객형상을 창조하였다. 沈從文은 『虎雛』에서는 경찰을 살해하고 달아난 고향의 후배를 그림으로써 범의 새끼처럼 길들일 수 없는 협객의 용기와 자유정신을 찬양하였다. 특히 沈從文은 자신의 고향을 회고한 「鳳凰」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러한 유희정신은 호족 자제들의 너리에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지역 지식인의 의식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 군영의 장교들 중에는 예를 들어 연대장 顧家齊, 戴季韜 등과 같은 인물은 근대적 훈련을 받아서 용모가 대학생처럼 문약하고 온화해 보인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유희 분위기 영향을 많이 받아 용맹하고 민첩하며 손님 집대를 좋아하고 놀기를 즐겨하여 태사공의 전기 속 인물과 같다. 시인 田星六의 시에는 유희의 호기로운 기개가 가득하다. 높은 산, 세찬 물, 험한 땅, 짙은 안개 또한 이곳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되었

20) 陳山, 『中國武俠史』, 上海三聯書店, 1995, p.2 참고.

21) 안승웅, 「沈從文과 遊俠精神」, 『중국학』, 제19집, 2002.12.20., p.145.

22) “土匪의 愛心是十分濃厚的. 他們盡管怎樣的兇橫, 但他們的規矩是在本鄉十五裏之內決不生氣. 他們劫財神, 劫童子, 劫觀音(鄉中土匪綁票用的專語, 男為財神, 幼為童子, 女為觀音), 乃至明火搶劫, 但決不會搶到過自己村上的人. 他們所搶的人大概是鄉下的所謂‘土老肥’——錢如命的惡地主. 這些是他們所標榜的義氣” 郭沫若, 『少年時代』, 新文藝出版社, 1955.

다. 유희정신의 침윤이 과거를 만들어 내었고, 또 장차 미래를 만들어 낼 것이다.²³⁾

“호탕하고 의를 좋아하고, 불같이 화를 잘 내나 의협심이 강한 楚지역 사람들의 고전적인 열정”²⁴⁾이 湘西지역 하층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개인의 낭만적인 정서와 역사적으로 내려온 종교적 정서가 결합하여 바로 遊俠정신을 만들어 낸 것”²⁵⁾이라 여겼다. 그리고 그는 또 “遊俠정신의 침윤이 과거를 만들어 내었고, 또 장차 미래를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여겼다.

즉, 梁啓超가 일본에서 무사도정신의 영향을 받아 중국 고대의 협객을 깨웠다면, 상하이 지식인은 梁啓超의 영향을 받아 중국 민간과 전통문화에 남아 있는 협객의 정신을 깨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동북아 해역 인문네트워크 속 지식과 정보가 어떻게 유통, 수용되고 나아가 어떻게 새로이 창조되고 있나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국제도시 상하이는 중국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모여드는 곳이었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지식인들이 상하이에 머물렀고, 이로써 상하이에는 그들만의 애국 계몽주의적 엘리트 문화를 형성되었다. 열강의 침략을 받고 있었던 당시 시대적 특징으로 인해 계몽주의적 엘리트 문화에는 이전의 文治教化의 전통 대신 상무정신이 고양되어 선전되었으며 이는 상하이에서 대중적 협의서사가 형성되고 유행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3. 이주자의 도시 상하이와 하위문화 속 협의정신

1) 조계의 팽창과 다양한 인종, 지역민의 가치지향

개항 전 상하이의 인구는 50여 만에 불과했었는데 1880년에 이르러 백만을 돌파하였고, 1930년대는 300만 명을 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 직전에는 545만 명이 넘었다.²⁶⁾ 이러한 급격한 인구증가 양상은 상하이가 이주자의 도시임을 보여준다. ²⁷⁾상하이에 이주자가 몰려들게 된 이유는 상하이가 동북아 해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這種遊俠者精神既浸透了三廳子弟的腦子, 所以在本地讀書人觀念上也發生影響. …… 少壯軍營中, 如師長顧家齊、戴季韜輩, 雖受近代化訓練, 面目文弱和易如大學生, 精神上多因遊俠者的遺風, 勇鷙剽悍, 好客喜弄, 如太史公傳記中人. 詩人田星六, 詩中就充滿遊俠者霸氣. 山高水急, 地苦霧多, 為本地人性格形成之另一面. 遊俠者精神的浸潤, 產生過去, 且將形成未來. 沈從文, 「湘西·鳳凰」, 『沈從文文集』第9卷, 花城出版社, 1991, p.412.

24) 상계서, p.399.

25) 상계서, p.399.

26) 郭彥軍, 『近代上海社團發展及其社會管理意義研究』, 中共中央黨校 博士論文, 2013, pp.164-165 참조.

27) 1885년 이래 인구통계에 따르면 공공조계의 비상해적 인구는 대체로 80% 이상, 화계의 비상해적 인구는 75% 이상이었다 한다. 김승욱, 「근대 상하이 도시공간과 기억의 굴절」, 『중국근현대사연구』, 제41집, 2009.03, p.130 참고.

첫째, 조계의 성립과 확장을 들 수 있다. 조계는 중국 국내외의 혼란한 시기에 수많은 외국인과 중국인의 피난처 역할을 하였다. 1842년 남경조약에 의해 개항한 후 1845년 ‘上海土地章程’이 체결되고 1846년 영국조계가 개설되었다. 이어서 1848년 미국 조계가 건설 되었고 1863년 영국조계와 병합되어 공공조계가 되었다. 1849년에 상하이 縣城과 영국조계 사이에 프랑스 조계가 설립되었다. 조계는 1948년 영국조계의 확장 이래로 1899년 공공조계의 확장 되었으며, 1861, 1900, 1914년 프랑스 조계가 연이어 확장되었다. 조계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중국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제국주의 국가였다. 조계에는 중국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國外之國’으로 조계의 각국은 별도의 행정, 입법, 사법 조직을 만들어 해당 지역을 관리했다. 원래 조계에는 중국인이 거주할 수 없었는데 1853년 소도회 반란군이 상하이 현성을 점령하여 2만 여 명의 중국인 피난민이 조계지로 피난한 이래로 외국인과 중국인의 분리거주 원칙이 깨지게 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조계는 군대조직을 결성하게 되고 또 공부국이라는 새로운 통치기구를 만들게 된다. 조계가 중국인을 받아들이기끔 규정을 바꾸고 또 조계를 방어할 수 있는 군대를 유지하게 되자 태평천국의 봉기, 군벌 간의 전쟁 등을 피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상하이로 몰려오게 되었다.

둘째, 상공업의 발전을 들 수 있다. 무역항으로 발전한 상하이에는 일찍이 상공업, 금융업, 부동산업, 건축업, 의료사업 등 다양하고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였다. 특히 조계의 치외법권은 외국자본의 권익을 보호하였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대거 투자되었다. 중일전쟁 전까지 동북삼성을 제외하면 외국 자본이 상업의 81%, 금융투자의 76.2%, 공업투자의 67.1%, 부동산의 76.8%가 상하이에 집중되었다.²⁸⁾ 특히 세계 1차 대전을 기점으로 상하이에 근대식 공장들이 대규모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1914년부터 1928년까지 총 15년간 1,229개의 공장이 지어졌는데, 이는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 38년간 총 153개의 공장이 세워진 것과 비교해볼 때 엄청난 변화였다.²⁹⁾ 1933년 상하이의 공업총생산은 11억 위안에 이르러 중국 전체 공업총생산액의 절반에 달하였다.³⁰⁾ 이러한 경제번영으로 상하이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와 일자리를 찾는 자가 꿈꾸는 도시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갑작스러운 이주민의 증가로 상하이는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가 되었다. 개항 전 1평방킬로미터 당 626.6명이었으나 1914년에는 3600, 1935년에는 7000명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졌다. 1949년의 경우 밀도가 높은 곳은 14만 명에 이르렀다.³¹⁾ 성비 또한 민국정부의 1947년 공포에 따르면 전국 성비 평균은 110이었는데, 상하이의 성비는 156으로 전국평균보다 46 이나 높았다.³²⁾ 이러한 인구밀도나 성비는 상하이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도시였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외국인들과 중국인 이주민들은 상하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28) 위엔진, 「상하이는 어떻게 중국 근대의 문화중심이 될 수 있었는가」, 『한국학연구』, 제20집, 2009.05, p.16.

29) 최지혜, 『중국 上海의 근대도시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연구(1843-1943)』,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12.08, p.157.

30) 위엔진, 「상하이는 어떻게 중국 근대의 문화중심이 될 수 있었는가」, 상계서, p.16.

31) 邹依仁, 『舊上海人口變遷的研究』, 上海人民出版社, 1983. (郭彦軍, 『近代上海社團發展及其社會管理意義研究』, 앞의 책, p.168에서 재인용)

32) 郭彦軍, 『近代上海社團發展及其社會管理意義研究』, 앞의 책, p.168 참조.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개항도시의 특징은 이방인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식민도시이자 거대상업도시인 상하이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종이 집거하는 곳이 되었다. 개항초기 26명에 불과했으나 1865년에는 2,757명, 1905년에는 12,328명, 1933년에는 73,504명으로 증가하였다. 1940년대에는 150,931명에 이르러 당시 뉴욕과 더불어 외국인이 가장 많은 도시가 되었다.³³⁾ 상하이의 외국인 중에는 피식민지 국가의 독립운동가나³⁴⁾ 서양문물을 접하고 싶은 동양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상하이가 “모험가의 낙원”이라 불리게 되면서부터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물려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 외국인 대부분은 문화수준이 낮았으며, 심지어 범죄자들이 많았었다. 당시 영국의 영사 Rutherford Alcock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각 나라에서 온 이러한 외국인들은 천성이 비천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는 전 세계의 암적 존재였다. 중국에서도 역시 골칫덩이가 되었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유럽 각국의 인간 쓰레기였다.”³⁵⁾

미국인 소설가 Eddie Miller는 “상하이에서 만약 외국에서 온 모든 악질들을 쫓아내버린다면 중국에 남아 있을 백인종은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³⁶⁾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는 당시 상하이에 물려온 서구인들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지 추측하게 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하이의 저질 외국인들 일부는 상하이의 상류층에서 편입되어 상하이의 불건전한 사회풍토를 주도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상하이 전체가 배금주의, 기회주의, 요행주의, 한탕주의 등이 만연하게 하였다.

상하이의 외국인 대부분이 하위계층 출신인물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인 또한 그러하였다. 일자리를 찾아 상하이로 물려 온 중국인으로는 다양한 계층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으로서 하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 중 특히 아래와 같은 집단들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웠다.

첫째, 장쭈, 저장 등 상하이와 가까운 지역의 몰락한 농민이나 소작농들이 있었다. 이들은 농한기를 이용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상하이에서 물려 거친 일을 담당하였다. 주로 인력거를 몰거나 부둣가에서 짐을 나르는 등 거친 일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주로 빈민굴에 거주하고 있어 범죄에 노출되기 쉬웠다.³⁷⁾

33) 邹依仁, 『舊上海人口變遷的研究』, 上海人民出版社, 1983. (郭彥軍, 『近代上海社團發展及其社會管理意義研究』, 앞의 책, p.173에서 재인용)

34) 중국 혁명인사들의 활동무대가 된 상하이에는 세계적인 혁명인사들이 집결, 망명객, 위험인물 낙오자, 부패분자, 낭인 호객 등 잡다한 인물이 모여들 그 와중에 동아시아의 혁명인사들도 상하이 읍, 한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애국지사 모여들, 상하이는 동아시아 민족운동과 식민지 해방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다. 김희곤, 『중국관내 한국독립운동단체연구』, 지식산업사, 1995, p.33.

35) “來自各國的這群外國人, 生性卑賤, 無有效的管束, 為全世界所垢病, 亦為中國的禍患”, 他們無疑是“歐洲各國人的渣滓”. 丁明楠 等, 『帝國主義侵華史』第1卷, 人民出版社 1977, p.82. (郭彥軍, 『近代上海社團發展及其社會管理意義研究』, p.173에서 재인용)

36) “上海如果把一切外來的壞蛋都驅逐掉, 那在中國境內, 留下的白種人就沒有幾個了. [美] 愛狄·密勒, 『冒險家的樂園』, 上海文化出版社 1956, p.12 (郭彥軍, 『近代上海社團發展及其社會管理意義研究』, p.173에서 재인용)

둘째, 파산한 수공업자들이다. 제국주의 침략과 함께 값싼 외국 공업제품이 밀려왔다. 이에 농촌이나 중소도시의 수공업자들이 대량 파산하고 실업자가 되었다. 이들은 살길을 찾아 상하이로 몰려오게 되었다. 상하이의 범죄조직 중간 보스들 중에는 이러한 수공업자 출신이 많았다.

셋째, 조운업 종사자들이 있다. 함풍원년에 운하에서 해로로 뱃길이 바뀌자 수많은 실업자 발생하였다.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조운업 종사자들이 상하이의 부둣가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중국 전통 비밀결사조직인 靑幫과 관련이 있는 자들이 많아 상하이에 비밀결사 범죄조직이 생겨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넷째, 몰락한 지주나 부농자제들이 있다. 이들은 전란을 피해 상하이에 이주해 왔으나 상하이의 쾌락주의 문화에 빠져들어 몰락하여 자연스럽게 범죄에 노출되었다. 당시 상하이엔 이러한 부유층 자제들을 도박, 아편, 유흥 등으로 유혹하여 재산을 갈취하는 범죄조직이 많았고, 재산을 잃은 부유층 자제는 자연스럽게 범죄조직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인구의 유입으로 상하이는 법규보다 이익이 우선시 되고 힘과 권력이 최고인 세상이 되어버렸다. 일반 서민은 이러한 생존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누구보다 강해져야만 했다. 상하이에는 다양한 인종, 지역, 계층의 이주민이 있었지만 그들의 가치지향은 단순했다. 오직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 지식인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강해지길 외쳤다면 상하이의 하층민은 생존하기 위해 강해져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무법천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의 조직을 결성하고 뭉치기 위해 그들만의 협의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2) 부랑민의 삶에서 협객의 삶으로

상하이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많았지만 몰려드는 모든 이주민을 수용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대도시는 힘없는 하층민이 살아가기에 녹록치 않은 곳이었다. 의지할 곳 하나 없고, 언어와 생활습관이 다르며, 곳곳에서 외국통치자와 중국 통치자의 위협과 멸시를 견뎌내어야 했다. 이러한 때 힘없는 자들은 생존을 위해 동향, 업종 중심으로 단체를 결성하였다. 廣東 출신 사람들은 ‘聯益社’, ‘群義社’ 등과 같은 단체를, 寧波 출신 뱃사람들은 ‘焱盈社’, ‘保安水手公所’ 등과 같은 단체를 결성하였다. 이러한 하층계층의 비밀결사 중에는 청대 운하운송 선원들의 비밀조직인 靑幫이나 명말청초에 시작된 비밀결사인 洪門같은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조직도 있었다.

그런데 이주민, 비밀 결사[幫會], 범죄조직[黑社會] 이 삼자는 서로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³⁷⁾ 이주민의 비밀 결사는 상하이의 불건전한 사회풍토, 열악한 사회 환경, 통치 권

37) 1949년까지 상하이의 중심지는 수백 개의 빈민굴로 둘러싸여 있었고 도시민의 25%가 판자집에 살았다. Wu Junfan, 「상하이 빈민촌의 혁명과 사회적 경향의 영향」, 『상하이 사회학 7차 연례학회』, 2009. (우송대·탕차오젠, 「근대 상하이의 계절 이주민」, 『로컬리티 인문학』, (9), 2013.04, p.176에서 재인용)

38) 郭彥軍, 『近代上海社團發展及其社會管理意義研究』, 앞의 책, p.169 참조.

력의 무능함 등과 같은 조계의 특수상황에서 범죄 집단으로 변모하기도 하였다. 특히 무능한 조계 통치자는 상하이의 범죄조직을 키우는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질서유지를 위해 巡捕를 모집하였는데, 이 순포 중에는 黃金榮처럼 범죄조직의 우두머리로 성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범죄조직은 상하이 조계의 악습 - 아편, 도박, 매춘 관련 업종을 장악하였고, 이곳에서의 수입의 일정량을 세금으로 바침으로써 그들의 세력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였다.³⁹⁾ 그리고 세력을 키운 범죄조직은 정치조직과 연합하여 더욱더 큰 조직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이육사는 1935년 『개벽』의 「中國青幫秘史小考 - 공인 ‘깡그’團」라는 글에서 상하이의 범죄조직 청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 이 ‘깡’의 수령 즉 암흑 중국의 대통령은 누구냐? 이것은 군웅이 接據하는 중국의 모든 사회가 그러한 것과 같이 이 ‘깡’의 사회에서도 杜月笙, 黃金榮, 張肅林 등 거물(?)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封建的家長的인 이 결사의 주인들인 동시에 최고 통제자들이며 따라서 大法國租界內의 사실상의 지배자들이다. 佛祖系 당국은 彼等の 활동에 의하여 大金을 수확해 들이는 代償으로 그 지배권을 彼等에게 讓與하였다는 것은 杜月笙은 정말 불란서의 市參事員의 한 사람이였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⁴⁰⁾

이육사는 상하이의 범죄조직 청방의 세 우두머리가 조계에서 어떻게 그들의 세력을 키워나갔는가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청방의 세력은 일반 하층계층은 물론이고 도시의 소상인에서 프랑스 조계의 순사, 형사, 관리, 정치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인신매매, 아편밀수와 운반, 도박, 총기밀매, 청부살인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청방세력이 정치권력과 야합하여 어떻게 당시 진보세력과 민초를 탄압하였는가를 고발하고 있다. 이육사는 상하이의 청방세력이 많게는 10만에 이를 것이라 추측하고 있는데, 이는 상하이에 범죄조직이 얼마나 극성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범죄조직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만의 문화 - 하위문화를 형성하였다는 점이다. “하위문화는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문화와 달리 특정 하위집단이 지니는 특수한 문화를 의미”⁴¹⁾한다. 이들의 하위문화는 서구문물을 받아들이며 중국전통을 배척하였던 당시 지식인과 달리 중국의 전통 이데올로기에 많은 부분을 기대고 있었다.

범죄조직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및 형제의 서열을 중시하였다. 가입절차가 가장 단순하였다는 杜月笙의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붉은 쪽지에 “모모씨의 소개로 두선생님의 문하생이 되길 삼가 절을 올립니다. 이후로 스승의 가르침을 착실히 따를 것이며, 절대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적어, 날을 잡아 직접 찾아가 세 번 절을 올려야만 했다.⁴²⁾ 군사부 일체의 관념처럼 조직에서 스승으로 모신 사람을 부모처럼 따르며 의형제를 맺을 경우 형의

39) 1865년 프랑스 조계 내 아편, 도박, 매춘 영업허가 관련 수입이 전체 세수의 46.6%를 차지하고 있었고, 1906년에 이르기까지 매춘, 도박 관련 세수가 프랑스 조계의 중요한 재정수입이었다. 郭彥軍, 『近代上海社團發展及其社會管理意義研究』, 앞의 책, 2013, p.177 참조.

40) 이육사, 「中國青幫秘史小考-공인 ‘깡그’단」(『개벽』, 1935), 『이육사 전집』, 깊은샘, 2004.07, p.307.

41) 비판사회학회, 『사회학』, 한울, 2019.02, p.225.

42) 蘇智良-陳麗菲, 『近代上海黑社會研究』, 浙江人民出版社, 1991, pp.128-137 참조.

말을 따라야했다. 10대 규칙에는 스승을 속이거나 조상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 (一、不準欺師滅祖), 선배를 깔보아서는 안 된다.(二、不準藐視前人) 등과 같은 서열과 질서를 중시한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⁴³⁾

그리고 더욱 주목할 부분은 『삼국지연의』의 도원결의나, 『수호전』의 호형호제하는 형제들 처럼 강호의 의리를 중시하는 집단이길 원했고 이러한 규율을 중시하였다는 점이다. 조직에 가입한 후에는 위에서 언급한 10가지 규칙 외에, 10가지 계율 등을 숙지해야 했는데, 이들 규칙, 계율, 지켜야할 내용을 보면 이들이 단순한 범죄 집단이기보다 협객들의 모임이기를 원했음을 알 수 있다.

예로부터 음란이 모든 악은 근원이고, 무릇 백가지 선행 중에서 효도가 으뜸이다. 음란이 절제되지 않으면 국법을 어지럽히니, 우리가족의 10계에서도 음란함을 첫 번째 계로 한다. (自古萬惡淫為源, 凡事百善孝為先. 淫亂無度亂國法, 家中十戒淫居前.)

조직엔 비록 영웅호걸들이 많으나, 강개하고 호협함을 선의 근본으로 삼는다. 다른 사람이 급할 때 도와주고 위험할 때 구해주어야 하며, 폭력, 강탈, 살인은 조직에서 원망을 일으키니 삼가야한다. (幫中雖多英雄漢, 慷慨好義其本善, 濟人之急救人危, 打劫殺人幫中怨.)

가장 하등한 인간이 강도질하고 도적질 하는 놈이니, 위로는 조상을 욕보이고 아래로는 후세에 부끄러움을 남긴다. 우리가족은 모두가 영웅호걸들이니, 어찌 이러한 무리를 용납할 수 있겠는가? (最下之人竊盜偷, 上辱祖先下遺羞, 家中俱是英俊士, 焉能容此敗類徒)⁴⁴⁾

청방의 입회식은 무협영화의 한 장면처럼 엄숙하며 선서내용은 협의의 내용으로 가득하다. 이러한 협의와 관련된 절차는 구성원들을 단합시켰을 뿐 아니라 그들의 조직이 단순한 범죄조직이 아닌 정의를 실천하는 조직이라는 위안을 주고,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협의정신은 상하이 이주민 집단, 비밀결사, 범죄조직의 하위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는 이들이 단순한 규약을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순한 범죄자의 삶을 협객의 삶으로 미화했다. 예를 들어 馬永貞의 경우 세력다툼에 불과했는데 정의를 실현한 것으로 미화되

43) 十大幫規：一、不準欺師滅祖 二、不準藐視前人 三、不準提開放水 四、不準引水代織 五、不準江湖亂道 六、不準擾亂幫規 七、不準扒灰盜攏 八、不準奸盜邪淫 九、不準大小不尊 十、不準代髮收人. 蘇智良·陳麗菲, 『近代上海黑社會研究』, 浙江人民出版社, 1991, p.131.

44) 十戒：自古萬惡淫為源, 凡事百善孝為先; 淫亂無度亂國法, 家中十戒淫居前. 幫中雖多英雄漢, 慷慨好義其本善; 濟人之急救人危, 打劫殺人幫中怨. 最下之人竊盜偷, 上辱祖先下遺羞; 家中俱是英俊士, 焉能容此敗類徒. 四戒邪言並咒語, 邪而不正多利己; 精神降殃泄己憤, 咒己明怨皆不許. 調詞架訟耗財多, 清家敗產受折磨; 喪心之人莫甚此, 報應昭彰實難活. 得人資財顧人亡, 毒藥暗殺昧天良; 昆蟲草木尤可惜, 此等之人難進幫. 君子記恩不記仇, 假公濟私無根由; 勸人積德行善事, 假正欺人不可留. 休倚安清幫中人, 持我之眾欺平民; 倚眾欺寡君須戒, 欺壓良善罵名存. 三祖之意最為純, 少者安之長者尊; 欺騙幼小失祖義, 少者焉能敬長尊. 飲酒容易亂精神, 吸食毒品最傷身; 安清雖不戒煙酒, 終宜減免是為尊. baidu百科“青幫” [https://baike.baidu.com/item/%E9%9D%92%E5%B8%AE/2663745?fr=aladdin]

거나, 霍元甲의 경우처럼 과장되어 사람들의 입을 오르내리며 협객처럼 영웅화되었다. 하위문화로서 협의정신은 이주민들의 문화를 대표하게 되었던 것이다.

4. 맺으며

본고는 동북아해역 인문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상하이에서 무협서사가 발달하게 된 배경을 지식인의 엘리트문화와 하층민의 하위문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하이는 서구열강이 바다를 통해 중국을 침략하는 거점도시로 건설됨으로써 역설적으로 서구의 다양한 지식이 전해졌다. 상하이는 국제도시로 세계의 다양한 정보가 집결되는 곳이었다. 상하이는 중국 그 어느 도시보다 엘리트 지식인들이 집결하는 도시였다. 상하이에는 서구의 신문물을 배우고자 지식인들이 몰려왔고, 이에 다른 도시에서 출간되었던 『海國圖志』, 『天演論』 등과 같은 저작들이 상하이에서 재출간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상하이의 진보적 지식인은 중국이 처한 상황을 깨닫게 되고, 서구 열강의 침략을 맞서기 위해 자연스럽게 상무정신을 고취하게 된다. 그리고 이 당시 상하이에 소개되었던 일본의 무사도 정신은 당시 중국 지식인의 상무정신을 더욱 더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지식인은 중국 역사와 민간의 전통 속에서 협객을 발굴하였고 그들의 정신을 찬양하였다. 근대시기 열강의 침탈 속에서 중국 지식인은 文治教化의 전통을 버리고 협객을 찬양하였던 것이다.

상하이는 노동 이주민의 도시였다. 세계대전 후 서구의 자본이 상하이에 몰리게 되면서 국제도시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상공업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이에 상하이에는 다양한 국가, 인종, 지역민이 모여들었다. 이 당시 상하이에 온 외국인 중에는 본국에서 죄를 짓고 도망 온 사람이 많았다. 이들의 일부는 상류계층에 진입하여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재산을 모았는데, 이는 상하이가 배금주의, 기회주의, 요행주의, 한탕주의 등이 만연한 불건전한 사회가 되는데 일조하였다. 그리고 중국 이주민의 경우 대부분이 몰락한 농민, 수공업자, 일용직 노동자들과 같은 하층계층 사람들로서 일자리를 찾아 상하이에 온 것이었다. 이주민들은 그들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업종별, 출신지역별로 다양한 조직을 결성하였고, 이 중 많은 조직이 상하이의 무정부적 혼란과 생존경쟁 속에서 범죄조직으로 변질되었다. 조계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법과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주먹이 앞서는 혼란의 강호와 같은 시대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들 범죄조직의 정신적 가치는 고대의 협의정신에서 찾았고 이로써 이주민 집단에는 하위문화의 하나로서 협의정신이 선양되었다.

결론적으로 지식인의 엘리트문화와 하층민의 하위문화라는 상이한 두 문화는 시대적 특징으로 인해 모두 대중문화 속 협의서사로 수렴되어 발전하였다. 중국전통 대륙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협의문화는 근대시기라는 특수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동북아 해역 상하이라는 결절점 해항도시에서 새로이 대중문화의 형식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대중문화로서의 협의서사는 이후 홍콩, 대만, 일본, 한국 동북아시아 인문네트워크 속에서 발달하면서 세계로까지 발달하게 된다. 이에 관한 것은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놓겠다.

【참고도서】

- 임대근, 광수경 외, 『상하이 영화와 상하이인의 정체성』, 산지니, 2010.
임대근, 광수경 외, 『20세기 상하이 영화: 역사와 해제』, 산지니, 2010.
부경대 인문한국사업단 편, 『동북아해역과 인문 네트워크』, 소명출판, 2018.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편, 『세계의 해양도시 I 아시아편』, 선인, 2014
미야자키 마사카쓰 지프, 이수열·이명권 옮김, 『바다의 세계사』, 선인, 2017
최낙민, 『해양도시 마카오와 상해의 문화교섭』, 선인, 2014
대중문화연구회 지, 『무협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01.
진 산 저, 강봉구 역, 『중국무협사』, 동문선, 2000.
이진원, 『한국무협소설사』, 채륜, 2008.
최지혜, 『중국 상해의 근대도시로의 이행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12.08
蘇智良·陳麗華 著, 『近代上海黑社會研究』, 浙江人民出版社, 1991.
劉建輝, 『魔都上海——日本知識人の近代體驗』, 筑摩書房, 2010.08.
魏 源 著, 陳 華 等點校註釋, 『海國圖誌』
陳 山, 『中國武俠史』, 上海三聯書店, 1995.
郭彥軍, 『近代上海社團發展及其社會管理意義研究』, 中共中央黨校 博士學位論文, 2013.
이철원, 「중국의 근대문화 형성과정에서 상해 조계의 영향」, 『중국문화연구』, 2009.12.
서광덕, 「19세기 중엽 상하이 지식네트워크에 대한 고찰」, 『중국학』, 제63집, 2018.06.
조성환, 「한국 근대 지식인의 상해 체험」, 『중국학』, 제29집, 2007.12.
안승웅, 「沈從文과 游俠精神」, 『중국학』, 제19집, 2002.12.
이혜진, 「‘올드 상하이’의 도시 사회학과 식민지 조선인의 원 풍경」, 『우리문학연구』, 51, 2016.07
위엔진, 「상하이는 어떻게 중국 근대의 문화중심이 될 수 있었는가」, 『한국학연구』, 2009.06
이육사, 「中國靑幫秘史小考 - 공인 ‘갱그’단」(『개벽』, 1935), 『이육사 전집』, 깊은샘, 2004.07.
張秉倫·盧繼得, 「進化論在中國的傳播和影響」, 『中國科技史料』, 1982年第1期.
張麗華, 「梁啟超與『中國之武士道』」, 雲夢學刊, 2008年第5期.
梁啟超, 「『中國之武士道』自敘」, 『梁啟超全集』, 北京出版社, 1999.
沈從文, 「湘西·鳳凰」, 『沈從文文集』第9卷, 花城出版社, 1991.
baidu百科“靑幫” [https://baike.baidu.com/item/%E9%9D%92%E5%B8%AE/2663745?fr=aladdin]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국문	근대시기, 동북아해역, 인문네트워크, 상하이, 협의서사, 상무정신, 협객, 엘리트 문화, 하위문화
	영문	Modern Times, Northeast Asian Waters, Humanities and Cultural Network, Shanghai, Wuxia Literature, Militaristic Spirit, Wuxia Hero, Elite Culture, Low-class Culture

**Background of Prosperous Wuxia Literature in Shanghai during 1920s-30s
: Humanities and Cultural Network of Northeast Asian Waters and
Popular Culture of Shanghai during Modern Times (1)**

Ahn, Seung-Woong

Reflecting both the modern desire as well as traditional values of East Asian cultures, wuxia literatures, or chivalry literatures, have long been loved by many in Northeast Asian region while being branched out into various genres until today. In order to understand and explore how these popular chivalry novels have emerged, spread out, and changed overtime, one must take a macroscopic view of looking into the "Northeast Asian society in modern times". And in doing so, Shanghai must be at the center of attention as it was the hub of "humanities and cultural network of Northeast Asian waters" during the modern era.

Shanghai, during modern times, was an international city, where diverse information from all over the world would flow into. Social and intellectual elites gathered in Shanghai more than any other cities in China. Those intellectuals, who wanted to learn from new cultures of the Western society rushed into Shanghai, which led to republication of some famous publications from other cities including *Illustrated Treaties on the Maritime Kingdoms* (海國圖志) and *Evolution and Ethics* (天演論) in Shanghai. Against such backdrop, many progressive intellectuals in Shanghai began to realize the situation China was faced with. They naturally immersed into the so called "martialism" or "militaristic spirit". Many discovered knight-errants or wuxia heros in old Chinese history and civil traditions and admired their spirit. Amidst the invasion by the Western powers, the Chinese intellectuals of the modern times have chosen to abandon its long tradition of "educating people by literary", and praised the wuxia heros.

Shanghai was also a city of labor immigrants. With the Western capital rushing into Shanghai after the World War, this international city developed into the biggest commercial and industrial city of China, drawing various people of different nationalities, races, and regional background into the city. These immigrants formed

many different organizations based on their industrial fields, origins and etc. to survive and uphold their interest. And these organizations proactively and widely accepted wuxia (chivalry) spirit in order to reinforce their solidarity. Amidst the anarchic chaos of Shanghai and fierce competition to survive in such environment, many of these organizations degenerated into criminal organizations. In such process of deterioration, the wuxia spirit was emphasize even more. Wuxia culture become so prevalent in Chinese society that even the leaders of criminal organizations were highly respected as wuxia heros within the lower-class society.

In conclusion, the wuxia spirit was highly praised from all spectrums of the society from low-class labor culture to high-class elite cultures in modern Shanghai. This is highly relevant to the development of Shanghai as a hub of Northeast Asian humanities and culture network, drawing knowledge and intellects as well as capital and labors from all over the world. Such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 laid the foundation for prosperity of wuxia literatures in shanghai during 1920s-1930s.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안승웅 / 安承雄 / Ahn, Seung-Woong		
	소 속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Em@il	xiong01@hanmail.net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08월 28일	심 사 일	2019년 09월 05일
	수 정 일	2019년 09월 09일	게재확정일	2019년 09월 17일